

자유학기 활동 교사 전문성 강화

전북교육청, 도내 중학교 교사 60여 명 대상 학생 참여형 수업 방안 모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자유학기(년) 운영을 위한 교사 전문성을 강화에 나섰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16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도내 중학교 교사 60여 명을 대상으로 학생 참여형 수업 방안을 모색하고, 교사의 자유학기(년) 활동 수업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를 추진했다.

이어 오는 28일에는 2차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유학기(년)제란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의 자아 이해 및 탐색, 소질과 적성, 삶의 가치관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유연한 교육과정을 편성해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요 내용은 ▲자유학기(년) 활동자로 활용 안내 ▲배움과 경험의 연결 자유학기(년) 활동수업 나눔 ▲주제선택, 진로탐색 수업디자인 ▲자유학기(년) 활동 수업 방안 모색 ▲수업디자인 역량강화 (하브루타, 비주얼 씩킹) 등이다.

학생참여형 활동 수업 나눔을 통해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고 교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역별 자유학기(년) 활동 수업 자료개발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유학기(년) 활동 수업 방법 및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나누고, 자유학기(년) 운영을 위한 교사 전문성을 키워 학생 참여형 활동과 과정중심 평가를 내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수업디자인을 모색하는 지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진안 주천초등학교는 지난 14일 우리 학교의 역사를 알아가고 더불어 우리 교장의 역사를 탐색하는 개교기념일 학교사랑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전북체육 발전 한목청

역대 사무처장 초청 간담회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17일 역대 사무처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강선 회장과 유인택 사무처장을 비롯해 임성택, 구기섭, 라혁일, 김대진, 류창욱 등 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민선체육회의 체육 정책과 체육 발전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임성택 전 사무처장은 "민선체육회로 체계가 바뀌는 등 변화가 있는 만큼 업무도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북 체육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강선 회장은 "전북체육 발전을 이끌어 온 역대 사무처장들의 고견을 깊이 새겨 듣고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며 "소통하는 전북체육회, 도민과 함께하는 전북체육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17일 역대 사무처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강선 회장과 유인택 사무처장을 비롯해 임성택, 구기섭, 라혁일, 김대진, 류창욱 등 전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체육회의 체육 정책과 체육 발전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진안 주천초 '특별한 개교기념일'

학교사랑 프로젝트 운영... 뿌리와 역사 탐색

진안 주천초등학교(교장 정미정) 학생들이 특별한 개교기념일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14일 개교기념일 우리 학교의 역사를 알아가고 더불어 우리 교장의 역사를 탐색하는 개교기념일 학교사랑 프로젝트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 학습은 주천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의 뿌리와 역사를 바로 알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학교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더 깊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천초등학교는 1854년에 건립된 외용암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데 외용암을 통해 지역의 인자들이 배출됨으로써 주천초등학교의 뿌리라 할 수 있는 화동학교가 건립되는 밑거름이 마련됐다. 구한말 인재양성을 통한 국권회복을 위해 당대 석학과 재사 한학자들이 모여들어 세운 화동학교(진안사립화동학교) 학생들이 1919년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을 필미로 일본이 학교를 폐교하고 그 부지에 공립학교로 인가 낸 주천보통학교가 현재의 주천초등학교다.

이 행사가 참여한 이선(주천초등학교 3학년) 학생은 "우리 학교의 역사를 알게 되어 뿌듯했다"며 "일본이 우리 처음 학교를 강제로 없애려고 한 것을 알고 너무 화가 났고, 우리나라를 되찾으려고 학생들이 만세운동을 했다는 것을 배우고 나니 자랑스러운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정미정 교장은 "이번 개교기념일 학교사랑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우리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학교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기르고 우리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학교 철학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교육연극으로 학생들 마음치유 해요"

도교육청, 27개교 프로그램 지원... 생명존중 문화 확산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교육연극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의 자해(살)예방하고, 마음치유를 통한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올해 초·중·고·특수학교 90개교에서 '마음치유·생명지킴이 학교'를 운영했다.

이들 학교에는 자해(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교육과 위험군 학생을 위한 상담 및 병원치료가 지원된다.

또 90개교 중 27개교에 대해서는 교육연극(역할극)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역할극 등 연극활동을 통해 보다 실질적·효과적인 생명존중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연극 운영을 위해 도내 연극단체 중 공모를 통해 10개 단체를 선정, 각 학교별로 매칭하고 오는 12월까지 교육연극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연극을 하기 전 연극단체와 충분한 협의회를 통해 마음치유·생명지킴이와 관련한 주제설정·방법·

공간·준비물 등을 정해 연극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평가도도 진행한다.

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8월부터 교육연극 운영학교를 모니터링 한 결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교육과정 내에서 생명존중 교육을 통해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배려,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취업자 문화의 날' 행사 성료

(제)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이윤애 센터장)는 16일 오후 6시 30분 전북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취업자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여성 5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연대감과 직장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로 마련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문화공연 관람은 문화사각지에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협력사업 일환으로 추진돼 더욱 의미가 있었다. 더욱이 전북을 대표하는 브랜드 공연 뮤지컬 흥도 1588은 동료와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떨쳐낼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이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사제간-학습튜터링' 시상식

전주비전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17일 통합멀티미디어컨퍼런스룸에서 '사제간-학습 튜터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도교수를 통해 학생학습역량 강화와 기초학습증진과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했다.

사제간-학습튜터링에 참여한 20개팀 학생 97명은 지도교수 주관 하에 실시간 화상시스템을 이용한 스터디 활동과 학습법을 발표했으며, '성적 향상도'와 '보고서 평가' 등을 심사해 최우수상 1팀, 우수상 3팀, 장려상 16팀 등 총 20팀을 선정했다.

최우수상팀의 이수진(물리치료학과) 학생은 "비대면 수업기간이 길어져서

전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는데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동기 및 선·후배 사이에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교수님을 통해 성적 향상까지 꽤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우수상을 받은 진형택(간호학부) 학생은 "스터디를 하면 모임시간 등 스터디 운영에 관한 의견이 충돌하고 모르는 내용에 대한 답을 알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데 교수님과 함께 스터디에 참여해보니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알 수 있어서 공부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영일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은 "앞으로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